

의향·예향 빛낸 천년 전라도, 민주·인권·문화 이끌다

천년 전라도의 **魂** <25> 시리즈를 마치며



순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초산 법화원 앞 장보고전기관에 세워진 장보고 상, 그리고 디산 정약용. (왼쪽부터)

솔직히 '전라도 천년' 시리즈를 하고 싶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전라도 1000년을 지나 1001년이 된 데다, 고리타분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 전라도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의 발로였다. 지난해 연재한 '전라도 1000년-인물열전'의 속편이라는 가치도 더해졌다.

그리고 1년이 가까운 취재가 이어졌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북-제주까지 전라도 곳곳은 물론 중국-일본까지 확대됐다.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점에서 사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상상과 상징이라는 교집합에 중점을 뒀다. 한 사람의 단독 플레이가 아닌 전라도인이라는 집단의 보편성과 가치를 찾고자 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호남도 우리 땅이요, 영남도 우리 땅이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찾을 수 없다', '닭우는 소리 새벽을 어기지 않네'라는 선조들의 외침이 상징적이다.

이번 시리즈는 3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전라도, 백성과 나라를 지키다'를 주제로 의향(義鄕)에 무게를 뒀다. 제2부는 '전라도, 시대정신을 이끌다'로 선각자들의 개척정신을, 제3부는 '전라도, 문화예술을 꽃피우다'로 예향(藝鄕)을 다뤘다.

의향 전라도는 충무공 이순신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는 말로 대변된다. 국난에 대처한 호남민중의 의기와 행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창한 '행동하는 양심'과도 같다.

임진왜란의 승리는 의병과 이순신, 그리고 이순신 사람들의 합작품이었다.

한류 원조 백제 왕인·신라 장보고
임진왜란 승리 이끈 이순신과 의병
정여립 대동사상, 동학으로 실현
김만덕·박호련·덕진여사 나눔정신
고려청자·아리랑·다도 등 문화유산
양림동 선교사 기독·근대문화 꽃피워

의병은 직접 전투에 나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흠뻑민심을 수습하고 백성의 사기를 높였으며, 보급대 역할과 유격전술로 왜군을 흔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의병 투쟁은 한말로 이어졌다. 한말 의병들은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찾을 수 없다. 나라 팔아먹은 놈은 목숨 걸고 안 하지만, 나라 지키는 사람은 목숨을 건다"는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그 무엇보다 화순 출신 의병장 최경회 장군의 "호남도 우리 땅이요, 영남도 우리 땅이다"며 관군과 영남의병이 떠난 진주성에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다. 고경명과 종후-인후 3부자, 양진여와 양상기 부자, 김태원과 김을-김원국과 김원범-양희일과 양희룡 형제, 최경회와 논개-강무경과 양방배 부부의 나라 사랑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의병기념시설 건립을 서로 하겠다고 각자 추진하고 있다. 예산 낭비뿐 아니라

나라 호남 의병을 '광주'와 '전남' 의병으로 쪼개갈 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임진왜란 승리의 주역에는 비밀병기도 있다. 수전에서는 '거북선'이요, 육전에서는 '화차'였다. 세계 최초 철갑선 '거북선', 기관총-탱크의 원조 '화차', 세계 최초 비행기 '비거'는 모두 전라도 국방과 학자들이 개발한 첨단 무기다. 이들의 창의성이 조선을 구한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 사람들도 기억해야 한다. 충무공보다 나이가 서른살이나 많고 수군절도사를 지낸 선배 제독 정길 장군은 가까이 작전참모가 되었고, 정운-송희립 장군은 좌우에서 손발이 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건국의 충신 신숭겸이 곡성 사람이고, 담양 전신민은 고려의 운명과 함께 했다. 조선수군의 시조는 고려 충신 정지 장군이다.

국난엔 '충(忠)'이 필요했다면, 평시엔 '의(義)'가 자리했다. "비바람에 세상은 비록 어두운 것 같지만, 닭 우는 소리 새벽을 어기지 않네"라는 놀재 박상의 의기가 상징적이다. 박상의 과감한 지적과 비판은 호남사람의 정신적 지표가 됐다. 호남사람은 정치적으로는 패했을 지언정, 시대정신은 잃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과 담을 쌓지 않았고, 모여 시와 경륜을 공유했다. 누정에서다. 호남사람의 정신적 토대와 실천성은 국난에 직면했을때 의병과 충절로 표출됐고, 사회모순이 노정될때 날카로운 비판과 개혁으로 본연의 지성적 책무를 다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최초로 선포한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러나 이보다 330년 전 조선에서 공화제를 주장한 이가 있었다. 정여립이었다. 정여립의 대동사상이 실현된 곳이 동학이었다. 동학은 전라도 땅에서 꽃을 피워 근대사의 출발점이 됐고, 그 정신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로 발현됐다.

백제 왕인과 신라 장보고는 한류 원조들이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국제적 안목을 갖춘 선각자들이다.

지눌과 요세가 이끈 불교계 개혁운동인 결사(結社) 또한 시대정신의 발로였다. '고이면 씩는다', '차면 남진다'는 진리를 일깨운 실천가들이었다.

굽주린 백성을 살린 건 나랏님도 양반도 아닌 또 다른 백성들이었다. 제주 여인 김만덕, 광주 서창의 마지막 뱃사공 박호련, 영암 덕진여사의 나눔정신은 오늘날에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광주 양림동 선교사들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버려진 땅 양림동산에 교회·학교·병원을 세워 기독교문화와 근대문화를 꽃피웠다.

예향 전라도는 '문화유산 답사 1번지'로 꼽힌다. 천하제일 '고려청자', 수목비엔날레로 부활한 '남종화', 소외와 한을 예술로 승화한 '판소리와 진도아리랑', 인문학의 모태 '누정', 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남도의 '감칠맛'과 '다도(茶道)'는 풍류와 맛을 아는 전라도 사람들의 얹히고 설킨 삶이었다. <끝>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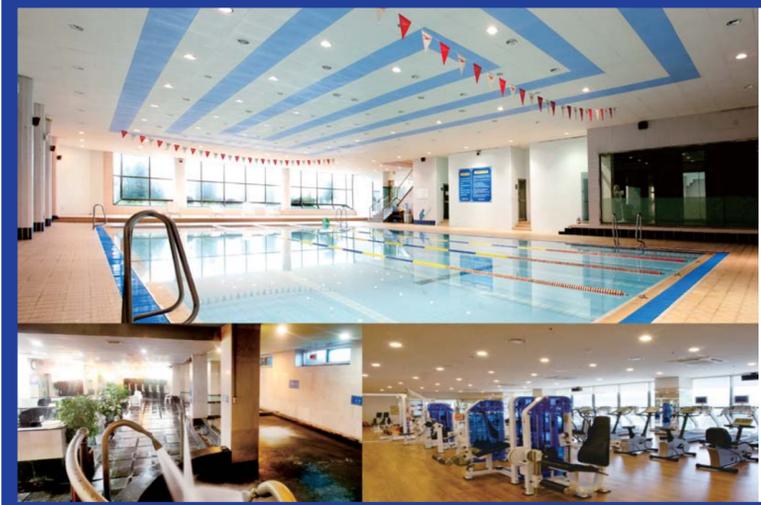


'성산별곡'의 산실 담양 식영정. 세월과 생기를 동시에 머금은 400년 노송이 용틀임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 중군기자 프레드릭 맥켄지가 1907년 촬영한 '정의의병'.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구분	월	6개월	1년
개인	₩ 300,000	₩ 1,200,000 (월 ₩200,000)	₩ 2,000,000 (월 ₩166,670)

특 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10% 할인
- 객실 이용시.....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